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 대행 스님의 법문 중에서 발췌하여 답변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 편집자〉 ●보낼곳 : 우 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월드오피스텔 606호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FAX : (031)470-3116



대행 스님

제 1283 호 현대불교
2020년 3월 4일(2월 10일) 수요일 / 불기 2564년

한 점 마음의 부동한 그 자체, 하나도 없는 그 하나가 우주를 삼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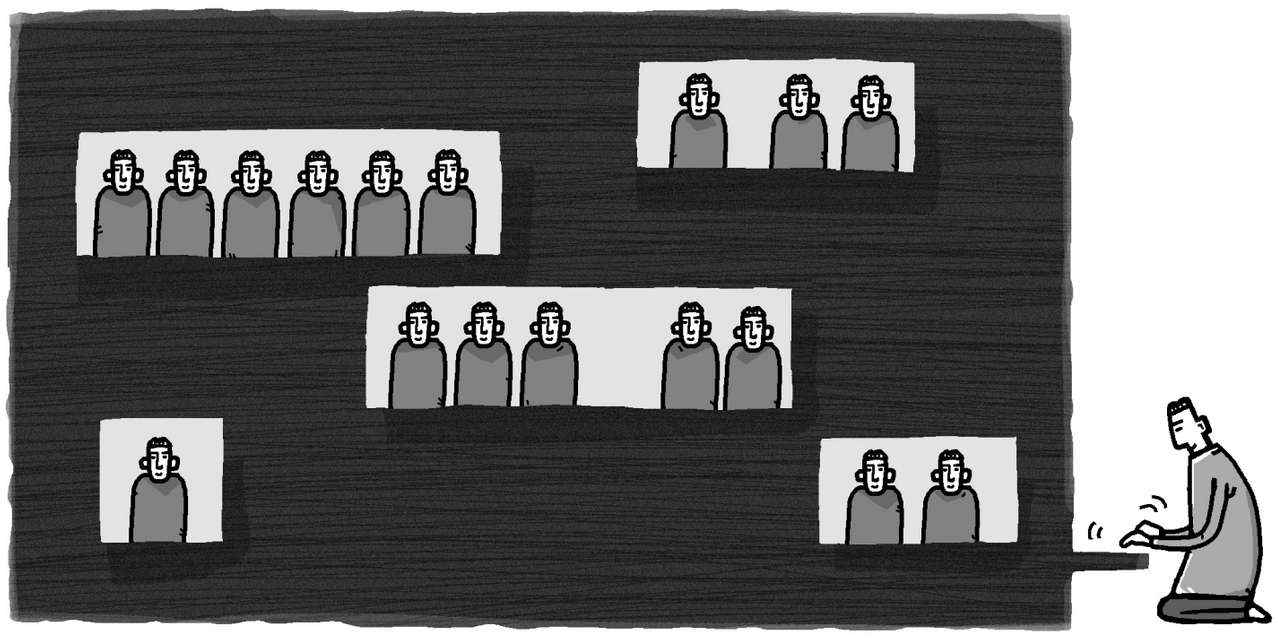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여러분은 지금 갖은 각색으로 옮겨 가면서 나투어 가는데 마음 씀씀이를 내놓으라고 하신다면 아마 누구라도 못 내놓으실 겁니다. 내놓으실 수 없겠죠? 내놓을 수 없으면서도 다양하고 소소영영하게 씀씀이를 쓴다는 거, 그거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 이 몸뚱이 하나하나가 혹성이라고 생각할 때, 이것이 혹성인데다가 기계적으로 돼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디로 오는지 가는지,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복잡한 거죠.

인간의 그 모든 기계적인 체가 생길 때에 바른팔에서 왼다리로, 왼팔에서 바른다리로 이렇게 꼬여서 삼등분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생김생김이, 기계의 조직이 이렇게 세밀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어지지 않으면서도 왼쪽에서 바른쪽으로, 바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삼등분이 돼 있다는 그 사실도, 또는 상반신, 중반신, 하반신으로 친다면, 우리 몸뚱이도 한 혹성의 기계적인 자동 전자기나 다름없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무전통신기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 이 머리에도, 즉 말하자면 "오관을 통해서"라고 얘기를 항상 했죠. 그런데 감각이니 지각이니 하는 문제도 바로 우리 두뇌에 기계적으로 돼 있다는 얘깁니다. 또는 무전통신기도 바로 양면에 맞달려 있다 이겁니다. 기계같이 그렇게 돼 있고 천체망원경도 바로 뒤쪽으로 있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탐지기나 컴퓨터나 역시 다 있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이 오관을 통해서 하달을 하는 게 아니라 본부로 전합니다. 일단은 본부로 전해서, 스스로서 자동적으로 전해서 본부에서 책정을 해야만이 바로 하달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살아나가는 이치에서 우리가 하고 안 하고, 또 좋다 나쁘다 하는 그 책정을 결정짓는 데에서 오는 거고, 정맥 동맥이 스스로 돌아가는 자동 펌프는 그대로 연방 초(秒)에, 즉 어디고 하달이 되지 않는 데가 없고 전달이 되지 않는 데가 없습니다.

본래 우리가 살긴 살되 가정에서 무슨 '이런 일을 해야겠다, 이런 일은 한 달에 얼마씩 이렇게 든다, 이건 이렇게 해야겠다, 또 남편과 아내와 자식과 더불어 이렇게 이렇게 결정을 짓고 나가야겠다, 이래야 산다, 또는 이런 일을 해야 할 텐데, 이거는 어떻게 해야 옳을까' 하고 서로 얘기하다 책정이 돼야만이 그것이 하달이 되는 겁니다, 모두가. 그리고 순수하게 이렇게 그냥 살아나갈 때는 그냥 자동기가 돌아가죠, 전달이 되고. 그래서 항상 그런 책정을 하고 안 하고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기계적으로 돼 있는 이 문제들을 지금 볼 때에, 아까도 오관을 통해서 그렇게 연락이 되고 그렇게 초에 한 번, 맥박 뛰는 데에, 한 번씩 딱 하는 데에 벌써 다 돈 거예요, 손끝 발끝까지. 그 얼마나 빠릅니까?

여러분이 그 묘한 물건을, 기계적인 묘한 물건을 여러분이 지니고 바로 그 장소에 있으면서도 자기를 모르는 거죠. 그렇게 빠르고 그렇게 옮겨 다니면서 그렇게 손끝 발끝을 하나 남김없이 돌아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조직체라는 것이, 우리 인간 몸의 조직체가 얼마나 생명들이 많고 얼마나 공장장들이 많은가? 만약에 세포의 조직 공장장이 있다면 근육 공장장이 있어요. 이 공장장으로 하여금 모든 하달이 되고 모든 전달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아주 기묘하게요. 그리고 간장장, 쓸개장, 이자장, 소장, 대장, 직장 또는 콩팥장, 방광장, 이 등뼈의 우측장 또는 좌측장, 이 두뇌장…. 이 모두의 관할을 가지고 있는 이 장들이 밑에 하달을 해서 모두에게 전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연쇄적으로 이렇게 자꾸 받아서 돌아가는 거지요.

그렇다면 그 수효가 얼마일까요? 아마도 이렇게 위에서 장으로 직장까지 내려가게끔 그 모든 운영을 하는 데는 이 생명체들이 근육, 세포, 이 모든 문제에 있어서 모두 작용을 해 주지 않는다면 그건 죽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물건들이 잘 소화를 시키고 잘 나올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돼 있음으로써 똥도 버릴 수가 없죠. 똥에도 생명이 있고 똥에도 세균이 있어서 이익을 발부해 주고 또 해로움을 주기도 합니다. 이익만 준다고 해서는 아니 되죠. 그러면 이것이 오관을 통해서 모두 들이고 내고 본부로 전해지되, 본부에서는 움쭉 안 해도 자동 전자기처럼 그냥 그 한생각이 바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면 기계적인 어떠한 물질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그렇게 묘하게 기계적으로 돼 있는 이 한 점의 기계가,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한 뜻은 무엇이냐? 묘하게 그렇게 생겼는데도 "아무것도 아니니라." 한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본부의 그 한 점의 마음이, 부동한 그 한 점이, 한 점이라고 세울 것도 없는 그 부동한 한 점이 모든 것을 책정하고…. 그런데 그 부동한 한 점이 여기에 나한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여러분에게 각각 다 있는 것입니다, 똑같이. 그러면 인간에게만 그렇게 주어져 있느냐 하면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큰 회사도 있고 작은 회사도 있고 방계 회사도 있고 뭐, 별의별 회사가 다 있습니다. 집안에서 쪼끄맣게 공장 하는 회사도 있고 물건을 해서 수출하는 회사도 있고, 여러 가지 회사가 있는 거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 몸뚱이 안에도 수많은 회사가 있다는 거.

우리가 지금 세계적으로 본대도 나라가 그렇게 있는가 하면 회사가 그렇게 있고 그런데, 연쇄적으로 크다 작다 이것뿐이지 그 구조는 똑같습니다. 또 한 점 마음의 부동한 그 자체, 하나도 없는 그 하나가 바로 우주를 삼킨다고 하는 그 뜻입니다. 그건 왜? 전체 그것은 같으니깐 말입니다, 크나 작으나. 작은 회사는 뭐, 이름이 다른가요? 예를 들어서 방편으로 이렇게 말을 한다면 큰 것도 회사고 작은 것도 회사다 이거야. 작은 나라도 나라는 나라고 큰 나라도 나라는 나라야. 그럼으로써 뭐든지, 미생물에서 점차적으로 진화돼서 나온 저런 생명들도 불성이 있는가 할 때 그것도 불성이 없는 게 없죠. 본래, 크나 작으나 생겼다 하면 불성이 있기 때문에 생긴 거니까.

한 나라가 있습니다. 근데 공장이 많습니다. 전체 본부에 대통령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있으면 대통령에 의해서 모든 부서에 하달이 되듯이 그렇게 되는데, 여러분은 어디 어느 공장에 불이 나서 죄 탄다 하면 본부에서 할 수 있는 그것을 하지 않고 팔팔팔팔 뛴단 말입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듣질 못해. 거기서는 받질 못해, 전달을. 불이 났다는 걸 알기 때문에 여기 두뇌에 이 오관을 통해서 들기는 하는데 그게 직접 같이 돌아가질 않아. 그건 무슨 소리냐 하면, 이 기계적으로 돌아가는 거는 그대로 돌아가는데, 그 기계적으로 돌아가는 거를 자유자재할 수 있는 그것은 할 수 없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돌아가는 것만 돌아간다 이겁니다. 그럼 불이 났으면 난 거야. 그 수습은 못 해. 그만큼 났으면, 타게 되면 타게 되는 거고 조금 타고 고만두게 되면 고만두는 거고, 그거는 거기에 의해서 그냥 해 나가는 거라, 공장장에 의해서. 본부를 거치지 않고 우리는 살거든. 본부를 거치지 않고들 모두 여러분은 산다 이겁니다. 본부의 결정도 없이 공장장 마음대로 한단 말입니다.

지금 그걸 비유해서 한번 볼까요? 공장 내에서 어떠한 수습을 하려면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정부를 통해서 정부에서 하달을 하게 되면 아주 금방 복구를 합니다. 또 금방 일들을 해내고, 전부 하달이 되고 말입니다. '영등포' 하면 영등포로 말입니다. 이렇게 하달이 되는데, 여러분은 본부를 통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극난한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그 본부에서는 천체 모든 세계의 왕이, 이 몸뚱이가 세계라고 한다면 그 몸뚱이 세계의 왕이, 본부에다가 해서 본부에서 하달이 돼서 한다면 초도 안 걸려.

그런 놈의 거를 아이구! 여기 이 다리가 저리고 이게 마비가 되고 무슨 어디가, 간이 어떻고 무슨 소장이 어떻고 대장이 어떻고…. 아무리 그래 봤자야. 아니, 본부에다가 전달을 안 하고 어떻게 거길 다 해결을 하느냐 이거야. 내가 그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나? 어떻게 해? 남의 손을 빌리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입장에 놓여 있는 거라. 내가 차라리 그 공장을 만들어 놓고 내가 해체하고 다른 공장을 또 만들고 이러는 것이 옮겨 가는 거라. 주인이, 본부가 없어지는 게 아냐. 그 생명들이 다 내 몸뚱이와 더불어 물질적인 것은 없어진다 하더라도 그것이 한데 합쳐져서 본부에서 그냥 하나로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로 됐다가 흩어져서 전부 공장을 세운다면 제가끔들 부서를 찾아 가지고 가는 거고.

그럼 이 몸뚱이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한번 그런 걸 거론해 봐요. 다른 데 황무지가 됐다, 물이 안 난다 그 모든 문제들이 어떠한 문젠가. 여기 처음에 이사 오니까 물이 여기 통 안 난대요. 물이 안 난다고 야단법석을 하고

☞ 22면으로 계속

